

Portfolio

(최근 작품 순서대로, 영화와 비디오 작업을 구분해서)

2012. 03.

김 영 남

백개의 못, 사슴의 뿔 (영화 <황금시대> 中)

A Hundred Nails And Deer's Antler

2009, HD Film/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13min. 45sec. (조은지, 오달수 출연)



보트

The Boat (Japanese Title : No Boys, No Cry)

2009, 35mm film, color, sound, 114min. (하정우, 츠마부키 사토시 출연)





영화 <보트> 포스터 (일본)

내 청춘에게 고함

Don't Look Back

2006, 35mm film, color, sound, 126min. (김태우, 이상우, 김혜나 출연)

부정형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불확실한 여정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불안에 시달리는 미완의 청춘, 시간을 늦추고 싶어하는 우직하고 무모한 청춘, 현실에 고개를 떨구는 무력한 청춘. 불확실성 속에 내던져진 세 명의 청춘 군상들. 삶을 관통하는 이 여정의 끝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직 사회에 자리를 잡지 못한 젊음이라는 시간대는 우리의 일생에서 아마도 가장 틀이 잡히지 않은 시간대라는 의미에서 부정형의 시간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삶의 속도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 조금은 빠르게 혹은 조금은 느리게 삶의 속도는 다양한 궤적을 그리게 되는 것이다. 이 영화는 일본 NHK와 공동 투자 및 제작하여 만든 영화이다.





영화 <내 청춘에게 고함> 포스터

뜨거운 차 한잔

A Bowl Of Tea

2005, 35mm film, color, sound, film/DVD Screening, 38min.

노년의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간 딸과 손자의 하루를 따라가는 이 작품은 죽음을 눈 앞에 둔 할아버지와 삶을 시작하는 어린 손자, 그리고 삶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딸을 소개한다. 서로에게 못다한 말을 가슴에 묻고 그들은 뜨거운 차 한잔을 나누어 마신다. 어린 손자에게 빈 낚시질의 묘미를 가르치는 할아버지처럼, 영화는 느릿한 걸음으로 인생을 이야기한다. - 부산국제영화제 Comment -



나는 날아가고, 너는 마법에 걸려 있으니까...

I Can Fly To You But You...

2001, 16mm film, color, sound, 48min. (김영재, 김영과 출연)

동대문 어느 건물에서 한 남자가 추락사한 날, 은숙은 애인 민수에게 잠시 이별을 고한다. 그녀는 친구 미희의 애인 상혁을 남몰래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수는 은숙을 잊지 못한 채 노래방에서 일하는 한 소녀와 여관에 들어가고, 은숙은 여관 앞에서 상혁을 유혹한다. 이미 상혁과 결혼을 약속한 미희는 민수에게 은숙을 붙잡아달라고 요구한다. 이 너저분한 관계가 계속되는 한가운데서, 민수는 은숙의 마음을 돌리고자 “나는 날아가고... 너는 마법에 걸려 있으니까” 라고 주절거려 보지만,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 이 영화는 칸느국제영화제 등에서 상영되었다.



길 위의 여름

Down Memory Lane

2000, 16mm film, color, sound, 17min.24sec. (윤희석 출연)

여자에 대한 기억을 잃은 남자와 그 여자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찾아온 다른 여자의 이야기. 남자와 여자는 그 기억의 공간과 소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간다. 우리는 무엇을 쫓는 것일까? 기억이라는 곳에는 어떤 사라졌지만 존재하는 형상이 남겨진 것이 아닐까...

현실과 기억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실과 기억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들을(틈들을) 연결 및 형상화하는 매개물로써 그 공간과 소리를 이용하여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행동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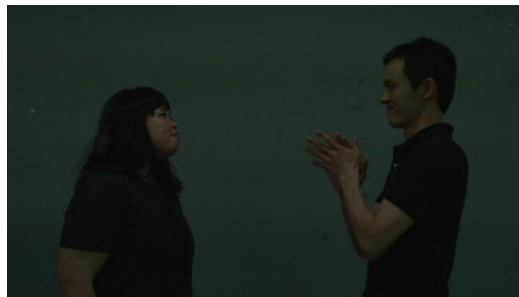
Exchange Behavior

2012, single channel video, 1 monitors/ 1 DVD players, color, sound, 3min.

퍼포머에게 어떤 조건과 함께 몇 가지의 제스처를 부여하고, 퍼포머가 그 가운데서 무작위로 선택한 제스처의 행위를 한 후, 그 행위를 할 때 순간 떠오르는 것을 각자 종이에 적는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원래의 방향으로 반복하여 이동하면서 벌어지는 동일한 혹은 상이한 행동에서 다양하게 보여지는 순간의 생각들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런 방법으로 매 행동마다 퍼포머의 즉흥적인 생각들을 채록하였는데, 그 대답을 통해 작품을 재구성하는 전략을 택했다. 사람들에 관한 것을 발견해 내는 방법과 사람들과의 행동과 의미에 관한 관계들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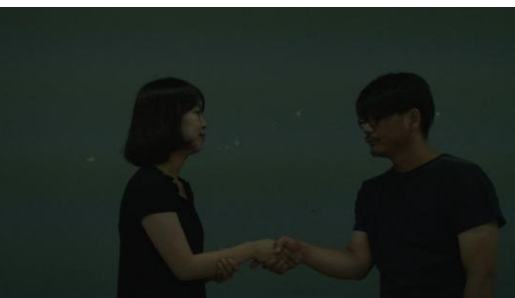
St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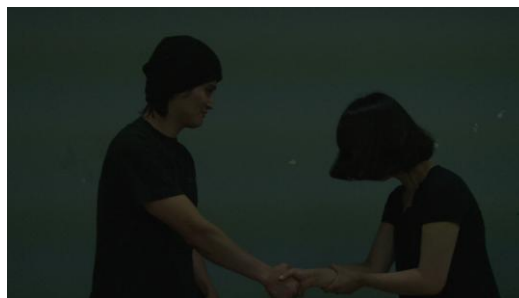
Happening 1



Happening 2



Happenin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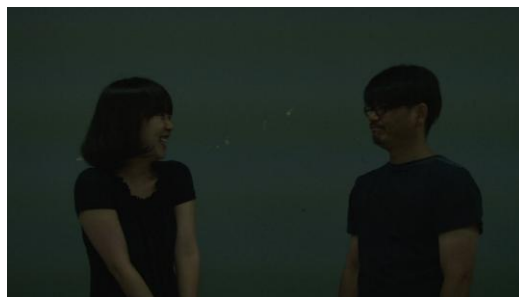
Happenin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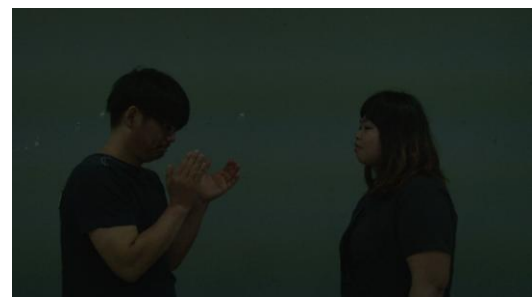
Bre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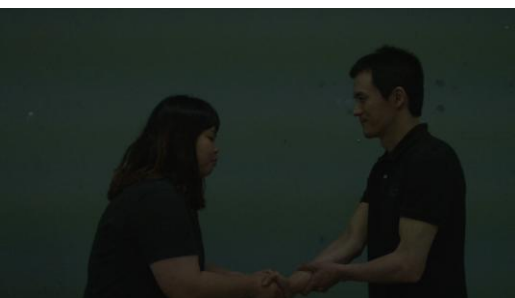
Happening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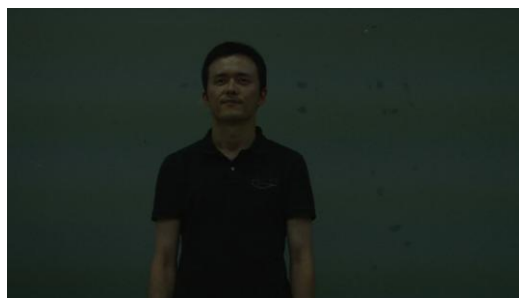
Happening 6



Happening 7



Happening 8



End

사이

Between (Narrative II)

2011, two channel video, color, sound, two beam projectors/two players/two speakers, 7min.7sec.

두 경계의 사이에는 존재하는 것들.

전화의 이쪽과 너머의 저쪽, 문의 이쪽과 너머의 저 쪽. 그리고 각각의 채널이 지닌 화면 안과 밖. 그리고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 사이의 인식의 틈.

장면은 각각 한 컷으로 분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보여지지만, 각 장면은 이야기와 사건이라는 내러티브 중심의 이유에서 구성되는 편집보다는 이미지(제스처/퍼포먼스)와 소리의 리듬을 바탕으로 본질적인 요소에 반응하는 방법으로 편집 되며, 화면의 표면 안에 담긴 것들의 불균질한 내러티브의 생성에 대해 주목한다. 익숙하게 여겨졌던 방식들이 가까워졌다가도 한편으론 달아나버린다.



Left



Right

Pretty Good Look

2009, single channel video, 19min. B&W/Color (공동 팀 작업/모니터링팀과 함께)

수상한 사람에 대한 필터링을 통해, 인간 사회구조와 개인의 삶에 깊이 침투해 있는 어떤 필터링의 기재를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의 필터링 안으로 우리들을 던져보는 작업이다.
누가 수상한 사람이고, 누가 감시하는 사람인가?



개미 보는 여인

A Woman Who Is Watching An Ant

2009, two channel video, two projector/two players/two speakers, 3min.50sec.

‘개미 보는 여인’ 자막이 나온 후, 한 남자가 여자에게 뭔가를 손바닥 위에 건네 준다. 그 후, 여자는 그 뭔가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쳐다본다. 우리는 그 뭔가가 이미 본 자막을 통해 개미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채널의 여자를 통해 우리는 개미를 본 여자를 바라본다. 하지만, 잠시 후 진짜 개미를 본 여자와 허구의 개미를 본 여자를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다시 보여지는 개미를 보는 여인. 이제 이 여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일까?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이 본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가?

또한, 무의식 중에 남아있을 감각의 기억을 떠올려 어떤 상황을 재현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행위를 통해, 퍼포머의 신체가 남긴 흔적을 ‘이미지’로 보면서, 관객들에게는 그 보는 행위에 대한 태도, 재현의 결과로 도출된 이미지로부터 생겨지는 존재와 실체의 간극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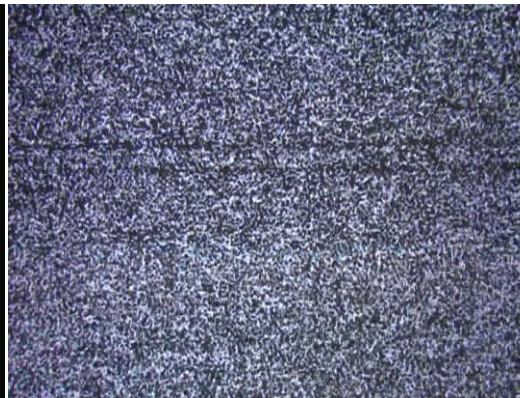
Left Right

Variable video : 3min.

2009, Installation/single channel, 3min.

많은 이들이 비디오에서 뭔가 보거나 듣거나 하는 충동을 가지며 기다리지만, 그 충동과 욕망을 제거하고 그 자체로 목격하기를 제안한다. 작품 제목으로 시작하여, 작업자들의 이름이 적힌 크레딧으로 끝나는 3 분이라는 영상의 시간 동안, 관람객은 시간이 흐를 수록 자신과 반사된 자신, 혹은 비디오의 공간과 자신을 둘러싼 전시장의 공간에 대한 자각과 관계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결과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전면과 후면을 가로지르는 (어떤) 현상만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관람객의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미지가 투사되고 있는 모니터 위에 나타난 다소 변형되거나 왜곡된, 흐릿하고 흐물흐물한 형태로 보여진다. 불명확하게 포착되는 이 표면. 이 위로 이미지가 전개되는 두 개의 표면, 즉 비디오에서 나오는 검은 영상과 거기에 반사되는 영상. 현상은 영상에서는 표면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니터에 이 설치의 숨어있는 의미가 담겨 있다. 어쩌면 김성태 영화연구가의 말대로, 우리는 진짜 이미지를 담을 수 없으며, 우리가 담는 것은 이미지의 또 다른 이미지일 뿐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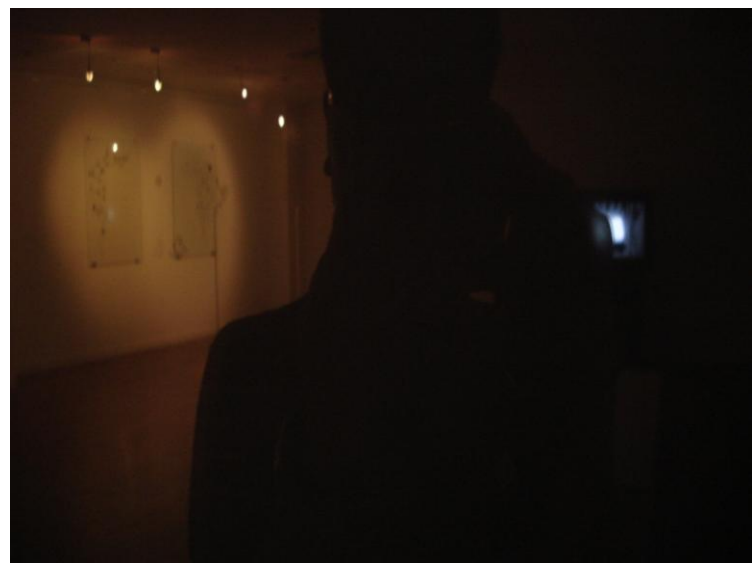
Variable Video : 3min.



Variable Video : 3 min.

by KIM Young-nam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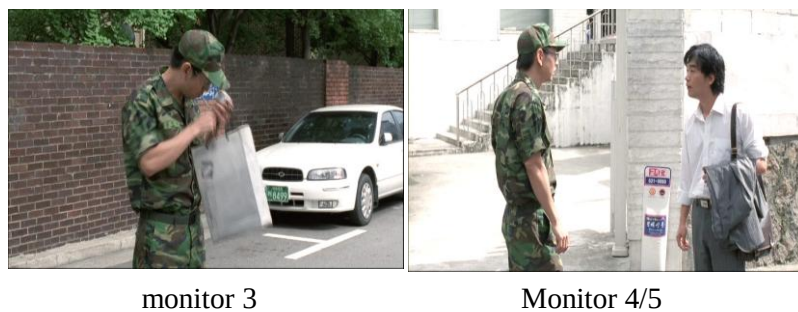
6 개의 모니터 안에 담긴 어느 남자의 도착

A Man's Arrival In 6 Monitors - Narrative I

2009, video installation, 6 single channel video/6 monitors/6 DVD players, color, sound,
영화 <내 청춘에게 고함>에서 한 장면을 인용. 6 번째 모니터 경우(총 8min.23sec.)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 한 대의 카메라를 사용해 편집 없이 사건을 한 번에 죽 이어 기록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촬영된 장면을, 연대기적 연속성을 파괴하며 표면의 제스처에 따라 움직임을 분절해 내고, 그 분절들을 각각의 모니터에 정교하게 배치하고 그 흐름의 추이를 관찰하게 한다. 그 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한 남자의 도착’이라는 한 컷으로 촬영된 영상을 6 컷으로 분절하여 여러 단계로 보여주었다. 설치된 여섯 개의 영상은 이제 처음 촬영된 것과는 다른 것이 된다. 의미를 가진 촬영된 하나의 영상은,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거나 변화하고, 결국 마지막 모니터에서 상영된 영상만이 처음 의도대로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부러지고 흐르는 고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변화하는 순간은 각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정보의 관계가 각기 다른 맥락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전시장에 설치된 6 개의 모니터를 보는 과정을 통해,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사물의 의미와 형태에 대한 상이한 정서적 층위도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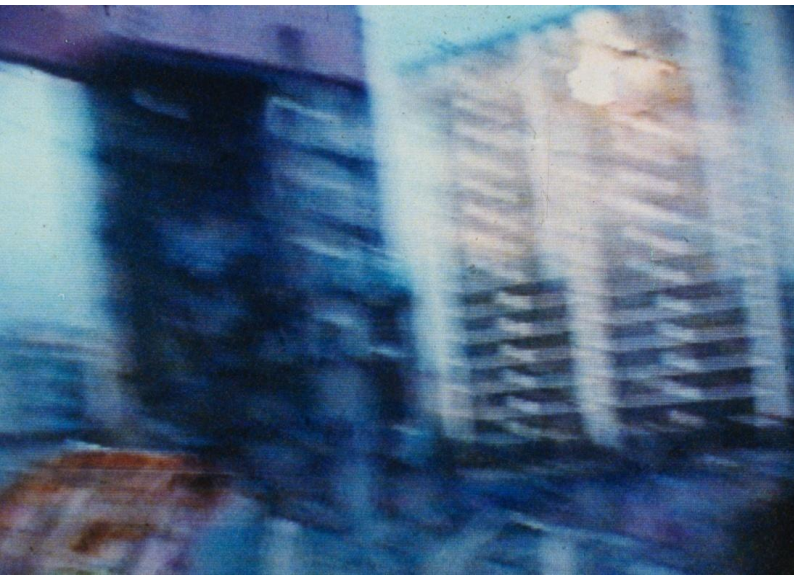
어느 어머니의 오후

A Mother's Afternoon

1998, 16mm film/video, color, sound, 8min.

어머니의 생일선물을 사러 간 딸을 백화점 붕괴 사고로 잃어버린 어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1년이 지난 뒤 어머니는 딸이 남긴 옷을 꺼내 입으려 하나 어느새 몸이 붙어 입지 못한다.

극영화와 다큐멘터리의 혼용. 실제 삼풍 백화점의 붕괴가 담긴 현장비디오를 극영화 속에 혼용하여 '기억'과 '역사'를 불러내기라는 형태를 영상의 작업 속성의 하나인 편집이라는 기술적인 분절(잘라내기)과 배치(잇기)를 통해 표현하였다. 1,2,4,6,8,12,16,24 프레임의 형태로 잘라진 이미지들을 불균질한 배치를 통해 생기는 어떤 물리적 리듬감과 정서적 리듬감에 대한 실험으로, 시간성 및 시간 안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형태를 구축해보고자 했다.



꿈꾸는 남자

The Dreamer

1997, 16mm film/experimental, color, Silent, film/DVD screening, 2min.10sec.

총 5 컷으로 구성. 어느 그룹 속에서 심리적 거리감을 가진 한 남자의 현재와 꿈 이야기.

